

##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만남

지금은 낡은 정치문화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이중 가장 강고한 지역주의 문화를 해소하고 투명한 정치, 상향식 정치로 가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사와 개별인터뷰는 많이 하지 않는데 집단으로 인터뷰 자리 마련했습니다. 지방 언론사와의 만남이 두 번째입니다. 중앙언론에 앞서 지방언론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발전과 지방중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발전에 지역 언론이 기여하는 바가 커서 지방언론을 존중해서입니다.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지난번 일정이 제 눈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양해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해서 그 빛을 갠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선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목표도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세웠던 목표도 지역구도 해소였습니다. 그걸 내걸었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선택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역주의에 가담하지 않고 맞서왔던 정치인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잘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중에 정치개혁을 항상 약속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구도 해소하는 개혁이고 투명한 정치, 정당정치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량을 가지고 지역구도 해소, 투명한 정치,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 등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정당불개입도 선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정치개혁에 나서면 오히려 정치개혁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지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으로 정당 지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천권, 당직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당 당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명실 공히 이 약속을 지켜나가지 않았을 때 대통령의 정당 지배로 인한 문제, 또 다른 정당정치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소야대의 국회입니다.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고 압도적인 야대 구도입니다. 정치개입을 하지 않아도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심지어 탈당을 요구하고 덮어씌웁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여당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입하면 한나라당 공세가 더 집요해지고 민주당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정치개혁은 정치권에 맡기고 나는 정부운영에 성실히 해나겠다고 해왔습니다.

정치공세의 명분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신당에 실제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입을 전제로 해서 공격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도 내심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사람의 당원으로서 개인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밝히면 개입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회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분당되고, 내가 신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작은 차원의 개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 전체 정치구도의 변화를 원합니다. 또 다른 지역구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기존의 정치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정치에 나쁜 병폐 첫 번째가 지역구도입니다. 그런 기존의 정치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만 분열하고 한나라당은 더 강하게 있으면 호남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기존의 정치는 증오와 분노만 부추기는 방식으로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영남의 압도적 지지를 업고 있는데 지역 구도를 전제로 호남당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면서 비난, 공격만 해온 구도입니다. 이런 정치구도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영남 주민들도 증오와 분노만 부추기는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틀의 역사의 흐름은 낡은 질서가 붕괴되고 새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입니다. 일차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투명한 정치, 상향식 정치로 갑니다. 내가 신당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질서 중 가장 강고한 것이 지역주의입니다. 상당히 오래 버틸 것입니다.